

복수로서 연구자와 방법론, 현장을 재탐구하기

Revisiting Researchers, Methodologies, and Fields as Pluralities

이보아*, 김현철**

공간은 동질적이지 않다(에드워드 소자, 1997)라는 말은 이제 비판적 공간 연구에서 새삼스럽게 재논의해야 할 필요도 없는 하나의 논증된 명제이다. 공간 내 존재하는 주체들은 다층적 위치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 관계는 일관되지 않고 맥락에 따라 가변적(Valentine, 2007)이라는 논의 역시 논증이 마무리된 하나의 '지식'으로 공간 연구 공동체에 자리잡아 왔다. 혼종적 공간에 대한 연구에서 단 하나의 절대적 방법론이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연구를 하는 연구자 역시 초월적 응시자가 아닌 그 공간과 함께 '춤추는'(Luker, 2008) 존재라는 것, 그렇기에 각기 다른 위치성을 지닌 연구자들이 살아가고 탐구하는 공간에서 겪는 경험 역시 결코 객관적이거나 동일할 수 없다는 것(Caretta and Jokinen, 2017)은 어찌 보면 방법론 논의에서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이다.

그러나 2018년 동아시아비판지리학대회에서 열렸던 페미니스트 지리학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boah8596@naver.com).

** 토론토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hchul.kim@mail.utoronto.ca).

자 모임을 비롯하여 2019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6월 특집호 준비 와 동시에 제안하고 구성한 페미니스트 공간연구 모임에서 학계의 여성 연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꺼낸 경험들은 보편화된 ‘지식’과 ‘명제’들이 젠더화(gendered), 성애화(sexualized)된 연구자들의 일상 공간과 관계, 그리고 연구 설계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고려되어 왔는지 다시금 질문케 했다.

모임의 참여자들은 남성 위주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학계구조에서 연구원 간의 차이(젠더, 섹슈얼리티,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 등)가 물화되고 ‘무조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연구실 문화 속에서 숨쉬기 어려웠던 경험들, ‘프로젝트에 더 잘 팔리는 큰 주제’를 쓰라며 자신이 고민하는 젠더화되고 성애화된 공간 내 문제들을 부차적으로 취급하던 시선들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처럼 ‘여성 연구자’라는 위치성이 연구자뿐 아니라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로부터 도출된 지식마저 비과학적인 비주류의 것으로 ‘여성화(feminizing)’해 온 경험들이 대화의 주를 이루었다.

이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몸과 경험이 여전히 비장애-이성애-중년 남성 중심으로 조직된 연구 프로젝트 스케줄로 흘러가는 ‘학계’라는 시공간의 구조와 규율,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학계에서 연구자가 단순히 연구를 수행하는 존재로 추상화될 때 연구자는 ‘아프지 않고, 출산/육아 휴가, (생리)병가를 낼 필요도 없으며, 1년 내내 언제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항시성을 가진 건강한 육체’로 수렴된다. 그 항시적 육체성을 갖지 못한 몸‘들’은 학계의 리듬에 맞지 않는 몸들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리듬에 맞지 않는 ‘나(I,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의 위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는 ‘작은’, ‘부차적인 연구로 취급되며 끊임없이 그 연구의 객관성, 과학적 적합성이 의문시된다.

모임에서는 또한 연구현장에 대해서도 인터뷰나 참여연구를 진행할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이 의심받거나 부정되던 경험들, 인터뷰 과정 중 맞닥뜨려야 했던 성추행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그리고 그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종종 나왔던 “필드에 그냥 홀로 던져진다”라는

말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고립감과 무력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계에서 이렇게 필드에 ‘던져지는’ 고립감과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은 많지 않다. 현장연구에서 많은 여성 연구자들이 여전히 겪는 ‘불쾌한(종종 성희롱/성폭행과 같은 직접적 단어들로 얘기되지 않는)’ 경험들은 학계 공동체에서 발화되어 연구 설계와 수행 과정에 하나의 언어로 의미화되기보다 연구자가 알아서 헤쳐 나가야 할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일쑤이다. 지금도 대다수의 현장연구가 개인의 역량(친밀한 성격 등과 같은)과 네트워크 풀에 좌우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연구 설계와 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예측이나 어떻게 그 변수를 연구자가 조율하도록 돕고 체계화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방법론에 녹여내고 방법론 자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학계의 논의가 깊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특집호에서 어찌 보면 학술적으로 논증이 끝난 것 같은 방법론과 현장의 복수성을 주제로 잡은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여전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실재하는 동료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수로서의 방법론 ‘들’과 연구현장 ‘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 완성되었거나 ‘당연한’ 지식이 아니며, 그 ‘지식’이 현 학계 공간과 연구현장에서 성찰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은 여전히 정치적·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공간과 몸의 이질성을 ‘당연한’ 지식으로 여길 만큼 논의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학계 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가? 왜 여전히 ‘더 객관적’인 연구(자)가 있다고 여겨지는가? 그리고 왜 여전히 현장에 ‘내던져지는’ 느낌 속에서 연구자들이 막막함을 느껴야 하는가?

자문화기술지로 우리 ‘들’의 공간 ‘들’ 분석하기

이상의 고민과 실천·수행이 담긴 총 세 편의 논문들이 실렸다. 세 편의 논문은 의미심장하게도 모두 자문화기술지라는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 자체가 연구자가 학문의 공간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서 교육·훈육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뒤집어 보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교육·훈육이 제대로 담지 못한 혹은 배제한 것들을 인식하고 경험한 이들이 먼저 발화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 연구자들이 자신을 내보이는 것, 즉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사회과학계에서 상당 기간 연구방법론으로 자리잡아온 자문화기술지이지만 《공간과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의 지리학계에서 자문화기술지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학술논문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공간 그룹을 통해 공유된 우리의 문제의식이, 배제되었던 연구방법의 집중을 통한 돌파를 선택하게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첫 번째 논문인 「지리학계에 보내는 편지: 지리학과를 떠난 두 여성 연구자의 이야기」에서 정희성·조규혜는 한국 지리학과와 지리학계에서 여성이 그리고 페미니즘이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방식을 본인들의 대학원 경험 분석을 통해 논한다. 저자들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페미니즘 지리학, 퀴어/섹슈얼리티 지리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얻었고, 제한적 객관성을 받아들여도 록 억압받았으며, ‘여성’ 지리학 연구자를 연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사적이고 사소한 학문 영역 밖의 사안이 아니라, 이성애규범적이고 남성중심적으로 구축된 지리학 내 지식 생산 조직의 문제임을 비판한다.

이 논문은 제목부터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도전과 실험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왜 ‘지리학과’를 소환하였을까? 여기서 ‘지리학과’는 논문에서 드러나듯이 특정 학교의 특정 학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국의 공간연구 학계를 상징한다. 둘의 경험은 지리학과 내 연구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결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논문의 공간성을 연구실이라는 장소에서 지리학과, 지리학계로 뻗어 나가고 다시 침투하고 교차하는 관계적 관점으로 보아야만 한다. 그 관계적 공간성에 기반을 두어야만 지리학적 지식의 구성과 연구자 양성에서 작동하는

권력 구조와 ‘여성’ 연구자의 위치성 경험을 따라갈 수 있다.

다음 질문은 왜 편지가 ‘지리학계에 보내’져야 했는가이다. 이유는 부제에서 짐작할 수 있다. 저자들은 현재 지리학과를 떠나고, ‘떠났다’는 서술어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두 저자가 지리학과를 떠나게 된 이유가 이 논문의 비판 지점이며, 그 이유는 여전히 지리학과에 남아 있으나 누구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고 있고, 두 저자 역시 지리학과를 떠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경험을 문제화할 수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미 전술했듯이 처음 이 논문을 기획했을 때 두 저자는 뚜렷한 문제의식은 있었으나 학술적 자원과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어떤 불편함과 부대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일상의 ‘문화’이자 ‘규범’으로 작동하는” 구조적인 권력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존 지리학계가 요구하는 매우 제한된 논문 형식으로 드러내기 힘들었다. ‘나’의 경험이 반드시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직관했지만, 그 경험과 경험에 대한 서술이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리학과’에서는 가르쳐주지도 접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논문 투고를 준비하면서 저자들은 자문화기술지라는 학술적 수단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이 수단 역시 ‘한국의 지리학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수단임을 깨달았다. 자문화기술지를 선택한 이유가 논문의 상당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학술논문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는 학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자신 없음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왜 편지에 학술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가를 되묻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김수정의 논문, 「연구자는 객관적 관찰자가 될 수 있는가?: 지리학 현장연구에서 여성 연구자의 위치성과 권력관계」는 역시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자신의 현장연구 경험을 분석하며, 여전히 강력한 ‘객관적 관찰자’라는 연구자에 대한 프레임과 이를 전제한 학문 시스템에 질문을 던진다. 연구와 연구자의 객관성에 대한 논쟁은 사회과학 전반으로 볼 때 사실 최신의 논의가 아니다. 그러나 논의의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리학계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연구자를 당연시하고 교육·훈육한다. 이 시스템에서 교육·훈육 받아온 저자가 이것이 현실과 괴리되었음을 자각한 것은 바로 현장 연구, 그리고 여기에서 경험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 변화 때문이었다.

현장연구에서 저자는 젠더와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등이 결합된 복수의 권력망 속에서 ‘여성’ 연구자로서의 위치성, 권력관계 변화, 그리고 위험을 경험한다. 당시 현장에서는 연구자가 20대의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면담을 마치고 귀국해야 하는, 인터뷰가 절실한 학위과정생이라는 점으로 인해 구직자로 오해를 받거나,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연구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또한 여기에는 저자가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혼자 가기에 길거리가 너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며”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연구자에게 같이 경치 좋은 바다에 가지 않겠냐고” 제안해 불안과 공포를 주었고, 또 어떤 연구참여자는 최초의 인터뷰 이후에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추가 인터뷰를 제안하며 연구자를 식사 자리로 불러술을 따르라고 하고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연구참여자는 “면담 내용 중 특정한 내용 위주로 연구에 기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면담 내용을 나쁜 쪽으로 해석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는 강압적 발언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혼란과 배신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연구와 논문을 망칠 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무력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힘든 자신에 대한 자괴감 속에 결국 오늘날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침묵을 선택했다.

이처럼 현장연구에서 저자가 받은 교육·훈육은 많은 경우 비어 있었고, 동떨어져 있었다. 현장에서만이 아니다. 이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저자는 이 경험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관련 내용을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일련의 경험을 다시 상술하고 분석하며, 즉 그 자체를 학술적으로 다루며 저자는 비로소 연구자란 연구 과정에서 한 발 떨어져 중립을 지키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현장연구의 과정에서 끊임

없이 재구성되고 개입하는 주관적이며 부분적 주체이고, 연구참여자 또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상황적 맥락에 따라 연구자와 수평 또는 수직적 관계 맺기를 수행하며 연구 과정에 개입하는 능동적 주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고민경의 논문 「IRB 연구윤리 심의의 한계: 연구자-연구대상자의 관계와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하여」 역시 연구 과정에서 변화하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논문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윤리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다. 연구는 한국에서 연구윤리를 제도화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법적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분야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간대상연구’까지 필수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 승인을 받도록 한 데에서 출발한다. 당시에 이러한 IRB 승인 대상 확대는 생명과학과 의약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규정이 사회과학연구와 큰 관련성이 없는 일률적이고 융통성 없는 심의기준이라며 학계의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기술자료를 주로 사용하는 질적연구자로서 저자 역시 이러한 IRB 심의 프로토콜에 의문을 품고 이를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관련 현장연구를 수행하며 느꼈던 문제의식과 연결한다.

당시 저자의 연구는 국외 지역 연구로 분류되어 IRB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양식을 제외하고 까다로운 심의로부터는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그 간단한 양식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조차 실제 현장에서는 연구윤리가 추구하는 연구참여자의 보호와 거리가 멀게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의 언어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낯설고 두려운 이주여성들에게는 연구동의서와 이에 서명을 하는 행위 자체가 보호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후 이들을 연구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연구에 대한 동의보다 금전적 ‘보상’이었다. 연구자가 주목한 순간에는 동의서를 받은 이후도 포함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연구에 자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종종 연구자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활용하고자 했다.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고, 연구와 큰 연관이 없는 이야기도 자르지 않

고 들어주길 바랐으며, 이것이 거절당하면 종종 다음 인터뷰를 취소했다. 저자는 이러한 질적연구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IRB가 상정하는 연구자=권력자, 연구참여자=피권력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관계는 실제 현장에서 많은 경우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저자는 연구자와 피연구자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연구자의 양가적인 감정과 자기성찰을 통해 연구자의 위치성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여성주의 질적연구의 맥락에서 연구윤리의 개발을 주장한다. 연구윤리는 결코 서류에 의거하여 심의·규제의 대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에 걸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성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소결

세 편의 도전이자 실험이 이제 가시화되었다. 이번 특집호에는 가시화되지 못한 시도들도 존재한다. 이 시도가 ‘무플’과 ‘악플’이 아닌 건설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학계 내 경험과 연구 설계와 연구 과정 중 부딪히는 고민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지점이 되기를, 그럼으로써 고립이 아닌 공론장을 만들어 함께 언어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결절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계와 연구현장에서의 경험을 의미화할 기회 없이 ‘고발’과 ‘침묵’이라는 두 선택지만이 존재하는 공동체를 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양단의 이중주만이 오가는 공동체로 치닫기 전, 고발이 아닌 문제 제기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안전에 대한 강박 없이도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자신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될 거라 믿는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연구자라는 몸‘들’에 대해, 그 몸들이 경험하고 부딪히는 연구현장에 대해, 연구 설계와 방법론에 여전히 내재하는 객관성의 환상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에게 적합한 연구윤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일 년 여 시간 동안 하나의 실천으로 기획한 이 특집호가 지면에 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심사자분들, 그리고 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더불어 매달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고민의 결들을 안고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눠준 페미니스트 공간연구 모임 참여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참고문헌

- 소자, 에드워드.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옮김, 서울: 시각과 언어.
- Caretta, M., J. Jokinen. 2017. "Conflating privilege and vulnerability: A reflexive analysis of emotions and positionality in postgraduate fieldwork."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9(2), pp.275-283.
- Luker, K. 2008. *Salsa Dancing into the Social Sciences: Research in an Age of Info-glu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Valentine, G. 2007. "Theorizing and researching intersectionality: A challenge for feminist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59(1), pp.10-21.